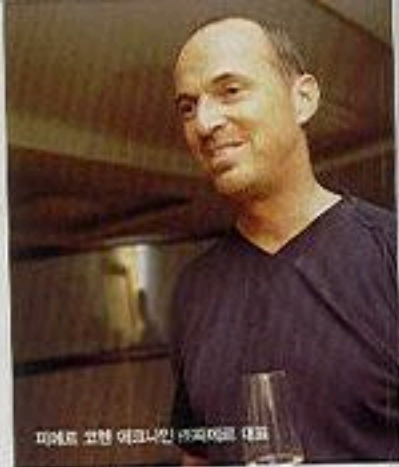




직접 요리를 만들고 있는 프랑스와 크리케펠트 롯데호텔 총지배인



업무상회의 일차식을 소개하는 동안 맛있게 있는 신성순 수석칼리셔(아이치비스 대표)



미에르 호텔 에코노미인 수석칼리셔 대표



서브 컨트리(미)의 유인 씨



뉴욕에서 활동하는 김오 전은 HCA(Hospitality Group International)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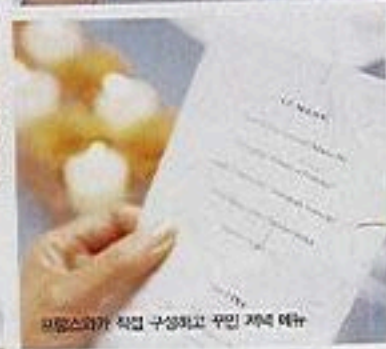
What Friends Are For

미식가로 소문난 프랑스의 크리케펠트 롯데호텔 총지배인이 8월 12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디자이너 케이 김과 홍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수지 김, 시가 사업을 하고 있는 파예르, 뉴욕에서 사업차 방문했다가 특별히 이 자리를 찾은 리토 칸만, 알식식당 소머렛의 신성순 대표가 바로 '미식'이라는 공통어로 묶인 그의 친구들. 여섯 명이 조화롭게 모여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는 이날 파티를 위해 프랑스의 집을 로맨틱한 컨셉으로 장식하고 손수 음식을 장만하는 정성을 보였다. 스킨랩에 올린 토마토 소스, 양고 샐러드, 양고기 등이 그의 솜씨로 만들어진 이날 파티의 특별 메뉴. 여섯 명의 미식가 친구들이 모인 즐거운 파티는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다.

진행, 이석연 사진, 박수희



프랑스의 크리케펠트의 수지 김 전대사장과 유인 씨 대표



프랑스의 직접 구성되고 꾸민 저녁 메뉴



맛과 조화가 있는 요리처럼 테이블 세팅